

달아 오른 민주 경선...2위 싸움 '점입가경'

안희정, 대연정·선의 여파 호남 지지율 이재명에 밀려 3위 기동민·이철희 등 합류로 반전 모색...오늘 두번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판도가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가운데 문 전 대표를 턱밑까지 추격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진보·보수층의 동시 이탈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며 2위 싸움을 재점화함으로써 경선레이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다자구도로 전환된 야권주자들의 초반 경쟁이 가열되고 각종 변수가 속출하면서 당내 판세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 또한 요동치고 있어 경선 막판 변수도 주목된다.

지난 2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안 지사 지지율이 14.5%로 하락했지만 이 시장은 9.1%를 기록하면서 양자 간 격차가 5.4%포인트로 좁혀졌다. 직전 주 양자 간 격차는 8.8%포인트였다. 특히,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안 지사(9.1%)는 이 시장(13.8%)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18.7%)에게 모두 밀리면서 4위로 추락했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지난달 28~31일,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양자 간 지지율 차이는 전주의 13%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한자릿수로 줄었다.

안 지사가 '선의 발안'과 '대연정'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조사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 반등하면서 양자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35.2%, 갤럽 조사에서 34%로 독주 태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대선 판도에 따라 각 캠프에서는 각각 굳히기와 뒤집기 전략을 고심하면서 표심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다.

추격에 나선 안 지사 측은 뒤집기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이철희·기동민·여기구 의원 등 초선의원 3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와 더불어 세대교체, 정치교체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안 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세 의원은 "꿈 없는 보수도 수구이지만 품 없는 진보 역시 수구"라며 "우리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품이 넓은 진보, 싸가지 있는 진보를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그

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안 지사 지지 원내의원 모임인 '안희정 멘토단'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단장은 박영선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전을 노리는 이 시장 측은 경선 첫 지역 호남에서 안 지사를 따돌렸다는 점에서 일단 2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결국은 문 전 대표를 꺾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을 주장하는 안 전 지사를 연일 공격하며 선명성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적 상대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가는 것이 어렵다고 권력을 나누고 청산돼야 할 세력에 무기를 주면 청산 거부로 자원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라며 "민주당 세력을 부인하는 세력과 손을 잡아버리면 정치가 아니라 잡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 후보는 6일 두 번째 라디오 토론회를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시 불거지는 '김종인 탈당설'

탄핵 결정 후 실행 유력 거론...'빅텐트' 행보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 결심을 굳혔으며, 직접 대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전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김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빅텐트'를 세우는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의 탈당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다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당내 개헌파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당분간은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대선 출마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명길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의 동반탈당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표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빅텐트'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탈당한다 해도 대선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어서 '찾담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 사드 놓고 '文 때리기'

"배치 찬성 밝혀야" 공세...민주 "외교 실패가 근본 원인"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고리로 야권 유력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공격하며 야권 후보 위주로 형성된 대선구도 뒤엎기에 주력했다. 또 안보 행보에 집중, 야권 지지율과의 차별화에 적극 나섰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광주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중국은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그는 지난 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민통합 캠페인'에서 "문 전 대표를 빼고 모두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며 "하나 된 국론을 위해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전 대표가 사드배치에 찬성하면 국론이 하나 된 우리를 중국도 탄지를 못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원우철 의원은 중국의 경제보복 타깃이 된 테트라

트 서울역점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은 사드 압박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일 사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지렛대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사대 역화를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취해 왔음에도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 수수방관하다가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만 휘둘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에서 기인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병세 외교장관에 대해 "사드 배치가 자위적 조치로, 가능한 빨리 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에서는 한반도내 추가적인 전략핵무기 배치 카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외교적 언사 수준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불모지 호남에 힘겹게 깃발 꽂은 '바른정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병국 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대선 주자들이 손을 맞잡고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도당 창당...광주 하현식·전남 이금재 위원장

보수의 적통임을 자처하는 바른정당이 5일 천신만고 끝에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호남 행보에 나섰다.

이와함께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중 포화를 날리면서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병국 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시도당 창당대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 당시 찬성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알지 못하면서 탄핵 코스를 떠돌았다.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탄핵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바른정당이며, 민주당은 정말 의지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프레만 했다"면서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갔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과 탄핵 소추 날짜를 놓고 이견이 벌어졌는데 국민도 이런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당 창당대회에는 정병국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운천 최고위원, 김무성 의원 등 주요 당

직자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당내 대선 주자,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광주시당 위원장에 하현식 바른포럼 중앙회장을, 전남도당 위원장에 보성 출신인 (주)보광 대표이사 이금재씨를 각각 선출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최소실에 의해 부정부패와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두 동강내고 있다. 이것은 국정농단보다 더 큰 죄"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매 주말 수십만의 태극기 부대를 불러모아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태극기집회에 나가는 김문수 인신제 등은 대통령

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광주시·전남도당 창당은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보수 진영의 신생 정당이 창당의 깃발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바른정당의 외연 확장을 꾀하기 위해 보수의 협지인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는 의지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호남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당의 정강·정책 전문(尙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가 하면,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하기도 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의 힘' 하루반만에 후원금 8억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후원회 '문재인의 힘'이 8억원에 육박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표의 경선조직인 '더문밖'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경선후보 후원조직인 '문재인의 힘'이 후원금 모금에 앞장서며 하루 반나절만에 1만여 명의 자발적 개미군단이 참여해 후원금 규모가 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더문밖'은 "2일 후원계좌를 공식 오픈한 지 하루 반나절 만에 1만12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며 "후원금액은 7억 3108만105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원자의 96%인 9728명이 10만원 이하의 후원이었다"며 "탄핵 이후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면 훨씬 많은 국민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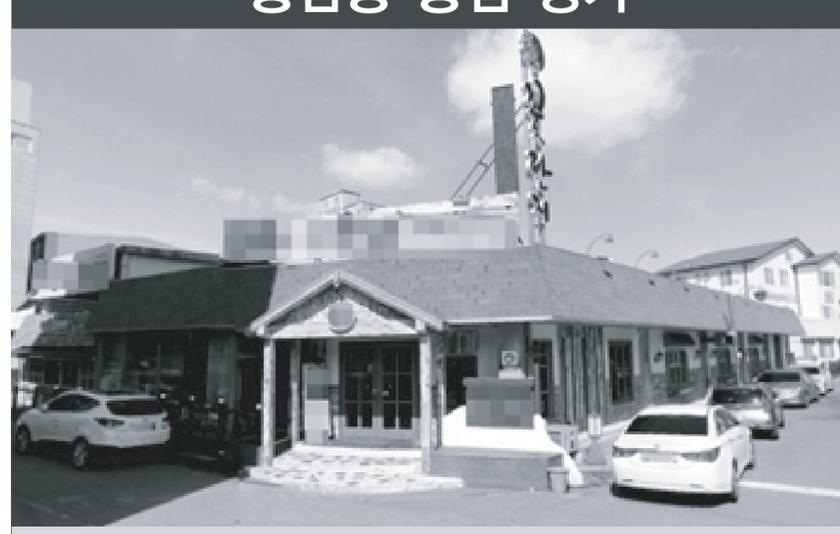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천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최저가 681,578,000
건물 97평 감청가 1,217,104,900

서구 매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최저가 1,450,531,000
건물 458평 최고가 2,072,187,000

문화의전당 옆 오피스텔



대지 215평 최저가 1,492,071,000
건물 467평 감청가 2,131,071,000

중흥동 상업지역 토지



대지 612평 최저가 2,126,985,000
 감청가 3,038,985,000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대지 91평 최저가 425,000,000
건물 340평 최고가 948,794,100

화정동 상가사무실



대지 48평 최저가 382,407,650
건물 160평 감청가 382,407,650

운영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아주중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청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